

중하위권 학생의 수시 복수 지원의 활용

일반대학은 수시 전형에서 6차례만 복수 지원할 수 있지만, 특별법 대학과 전문대학, 산업대학은 횟수와 관계없이 복수 지원할 수 있음. 상위권 수험생들은 카이스트 등 특별법 대학에, 중하위권 수험생들은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에 복수 지원하여 기회를 잘 활용하면 정시 전형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합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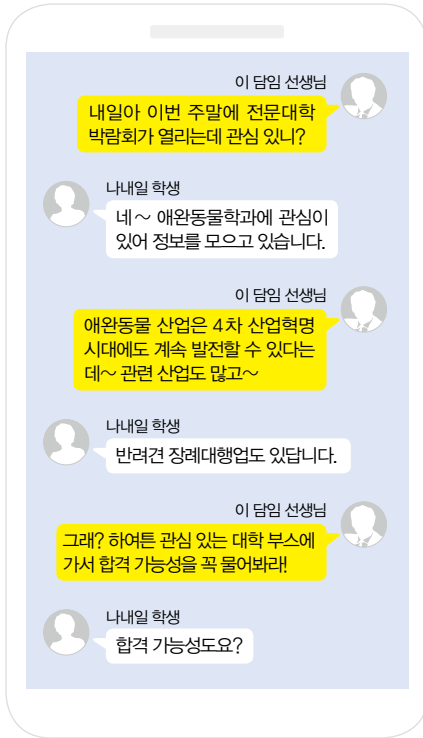
- ✦ 수능 성적 및 내신 성적 5등급 이하의 중하위권 수험생들은 수시 전형에서 복수 지원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전문대학은 일반대학보다 수시 모집 인원 비율(대부분의 대학이 90% 내외)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의 전문대학은 수시 1차에서 가장 많이 뽑고, 수능 성적을 알고 지원할 수 있는 수시 2차와 정시 전형은 모집 인원이 적습니다. 따라서 수시 1차 경쟁률이 그리 높지 않고, 추가합격으로 인한 이동이 심하기 때문에 정시 모집보다 합격 가능성도 큼니다. 수시 1차와 2차, 정시에 중복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단, 전문대학 수시 모집에서 합격 또는 추가합격 한 수험생은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치위생학과 등과 같이 합격선이 높은 학과들은 일반대학과 경쟁합니다. 일반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수험생이 전문대학 상위권 학과에 합격합니다. 따라서 전문대학 유망 학과는 충원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만큼 실질 경쟁률도 낮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외의 변수가 나타나 합격선이 매우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 아래 <표>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입시 일정을 비교한 것입니다. 전문대학뿐만 아니라 산업대학, 폴리텍대학, 방송통신대학 등도 일반대학과 모집 일정이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마다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는 수험생 수가 6만 명 내외로 감소하기 때문에 전문대학 합격이 그만큼 쉬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 한국진로진학정보원
신동원 이사

교단에 선 37년 동안 학부모들의 의견을 일일이 듣고 소통하려 노력했다. 서울 휘문고 진학교감,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 회장을 거쳐 휘문고 교장을 역임했다. 현재 (사)한국진로진학정보원 이사로, 진학 지도 현장에서 얻은 노하우를 전국 진학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글도 쓰고 강연도 한다.

구분		일반대학	전문대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	2019. 9. 6(금)~10(화)	(1차)2019. 9. 6(금)~9. 27(금), (2차)2019. 11. 6(수)~11. 20(수)
	합격자 발표	2019. 12. 10(화)까지	2019. 12. 9(화)까지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2019. 12. 19(목) 21시	2019. 12. 23(월) 21시
	수시 등록 마감	2019. 12. 20(금)	2019. 12. 23(월)
정시 모집	원서 접수	2019. 12. 26(목)~31(화)	2019. 12. 30(월)~2020. 1. 13(월)
	합격자 발표	2020. 2. 4(화)까지	대학 자율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2020. 2. 17(월) 21시까지	2020. 2. 29(토) 24시까지
	정시 등록 마감	2020. 2. 18(화)	2020. 2. 29(토) 24시까지



수시 모집에서는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만 합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은 4~5등급 학생들도 유망한 학과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졸업한 A학생. 강남 학군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학교 공부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영어만 5등급 정도였고 나머지 과목은 모두 6~7등급이었습니다. 수능 성적도 좋지 않아 정시 모집에서도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학원에 다닐 형편이 못 되어 주로 학교 방과 후 수업이나 EBS 강의를 수강했는데, 성적을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시 교감이었던 필자와 우연하게 만났는데, 체육과 음악은 좀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돈이 없어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자기를 잘 따르고 자신도 아이들과 노는 것이 재미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전문대학 홈페이지에서 유아교육과 모집 요강, 전년도 합격선 등을 조사해보고 요약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등 10여 군데에 원서를 냈지만 최초 합격자 발표에서 모두 떨어졌습니다. 사실 6등급대의 교과 성적으로 유아교육과를 합격하기는 힘듭니다. 다행히 서울에서 통학이 가능한, 당진에 있는 모 전문대학과 전남 지역에 있는 사립 일반대학에서 추가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면접 시험을 잘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전문대학을 선택했고, 졸업 후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지방에서 사립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도 초등학교 교사와 큰 차이가 없고, 건강보험과 사학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대학 졸업생도 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대학원 석사 과정은 학사학위가 있어야 입학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은 대부분 2~3년 학제로 운영되며, 이 과정을 이수하면 전문학사를 받습니다. 전문학사를 받은 후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사 과정(주로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유아교육과 등)을 1~2년 추가로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방송통신대학에 편입하거나 국가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에 등록하여 학사학위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고, 당연히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